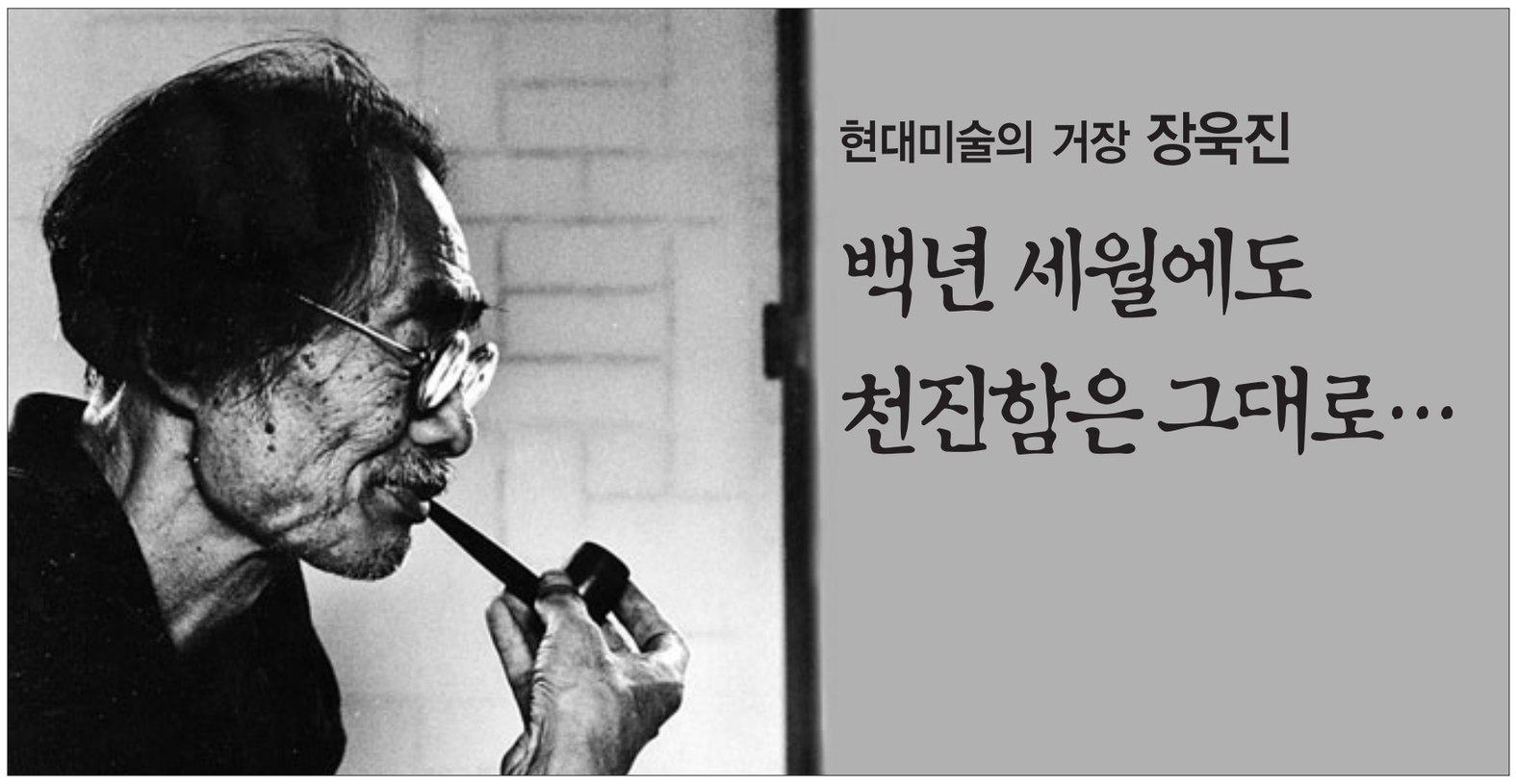


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

백년 세월에도 천진함은 그대로…



진진묘, 33×24.6cm, Oil on canvas, 1970.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회고전
'인사동 라인에 서다' 인사아트센터서

가나문화 · 장욱진문화재단 주최
유화 및 먹그림 등 100여점 전시
'진진묘' '팔상도' 등 불교 작품도
'배와 고기' 등 일반에 최초 공개

"다른 화가들은 아내 초상을 많이 그리던데 왜 당신은 안 그리느냐"는 투정 섞인 말에 붓을 잡아들고 일주일을 매달려 아내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런데 아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고행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입상불(立像佛) 뿐이다. 그림 속 적힌 '진진묘'라는 법명을 보고서야 아내는 그 부처의 모습이 자신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한 후 남편이 3개월을 앓아누워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아직도 '진진묘'는 아픈 손가락이다. 장욱진 화백이 불심 깊은 아내 이순경 여사를 그린 '진진묘'(1970)에 얽힌 일화다. 2014년 10월 경매에서 6억 원에 낙찰된 이 작품은 장 화백이 직접 제목을 붙인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장욱진 화백(1917-1990 · 사진)의 예술 활동을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가나문화재단과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 '장욱진 100년, 인사동 라인에 서다'展을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것. 장욱진의 유화 및 먹그림 100여점이 전시되며, 여기에는 '진진묘' '팔상도'(1976) 등 불교적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 소장가가 보내온 '나무와 새와 모자'(1973)와 '배와 고기'(1960)는 그동안 유족들도 보지 못한 작품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장 화백은 박수근 · 이중섭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힌다. 까치, 가족, 새, 나무, 마을, 아이 등 지극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동심과 순수함, 선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생전 "나는 심플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체면과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그 성향은 작품 속에도 녹아들었다. 새끼를 많이 낳은 돼지, 아침을 깨우는 닭, 우공(牛公)이 오가는 정경이 그것을 대변한다. '장엄함'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란 말이 그의 작품에 더 잘 어울리는 이유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화가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덕소 시절(1963-1975), 명륜동 시절(1975~1979), 수안보 시절(1980~1985), 신갈 시절(1986~1990) 등 총 4시절로 나눠 구성된다. 장 화백은 크게 4차례 아틀리에를 옮기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았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도 흥미로운 요소다.

1960년 초 덕소 시절은 6.25전쟁 이후 앵포르멜(Informel)의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마티에르 질감을 비교적 강렬히 표현함으로써 이상적이며 평화로운 공간을 묘사하는 등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명륜동 시절에는 더욱 간결하고 선명한 색상을 통해 강한 평면성을 나타내는데 화면의 단순미가 기하학적인 형태와 어우러지며 독특한 재미를 자아낸다.

이후 명륜동 시절의 영향을 받아 담담하고 소담한 표현이 주를 이룬 수안보 시절을 지나, 자유롭고 편안한 선염기법의 화풍이 돋보이는 신갈 시절에 이른다. 이 시기 장 화백은 화면의 도상들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적 해방감을 고스란히 표출했다.

장 화백은 경성사범부속초등학교 시절 '전일본소학생미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미술계에 발을 들였다. 1930년 경성 제2고보에 입학했지만 일본교사의 왜곡된 행동에 항의하다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림 공부를 탐탁지 않게 여긴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수덕사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1886-1948)을 만나 "좋은 화가가 될 것"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조선일보 주최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수상, 1939년 일본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유학 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취직하기도 하고,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국전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모든 사회적 명성을 뒤로하고 작품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욱진 화백의 명륜동 시절 작품 '소와 나무', 33.5×24cm. Oil on canvas, 1978.

김형국 가나문화재단 이사장은 "그는 비록 일흔 몇 해 이승을 살다 갔지만 그의 예술정신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줄곧 높이 평가 받아온 것으로 진정한 인생 백년을 이룩했다"면서 "그의 그림 미덕은 우리의 과거와 살아갈 미래까지 한 번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시는 8월 27일까지. 한편 이 전시 외에도 장 화백의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곳곳에서 열린다.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서 9월 12일~12월 3일 '장욱진 먹그림과 도자-선 · 선 · 선(線 · 禪 · 善)' △양주 시립 장웅진미술관서 8월 27일까지 '장욱진과 나무전' △장욱진 가옥서 11월 26일까지 '장욱진 드로잉전'. (02)736-102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색의 공간' 불일미술관서 더위 잊다

정상엽 작가 옻칠화전 외 8월 전시 '풍성'

무더운 여름, 빌딩숲을 피해 사색의 공간에 젖어들고 싶다면 법련사 불일미술관을 찾아가자. 다양한 주제의 8월 전시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정상엽 작가의 상엽 옻칠화전을 비롯해 8월간 매주 새로운 주제의 전시들을 마련했다.

11~23일에는 신진작가 공모전 5번째 전시로 정상엽 작가의 상엽 옻칠화전 '절로 가는 길'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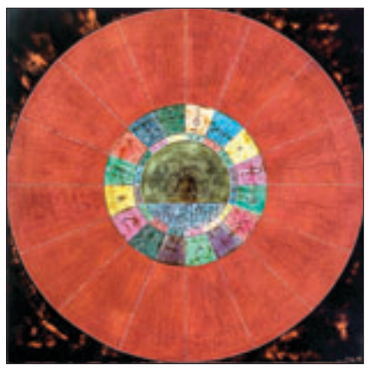
옻칠예술은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예술분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독특한 문화다. 생활문화는 물론 회화장르 및 종교용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활용되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제작 공정과 고가의 재료로 인해 대중화 및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과 타협, 칠하고 기다림의 연속인 옻칠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정 작가는 삶의 치열함에서 한 발짝 물러나 멀리서 지켜보는 미덕을 배운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정 작가가 유년시절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절로 가는 길을 떠올리며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종교에 다가서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그의 고민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16일까지는 2017 신진작가 공모전의 4번째 전시로, 프로젝트 M의 '숨 그리고 쉼'展이 진행된다.

이 전시는 불교 경전 사경, 명상, 선무도 수련 등을 통해 경험한 내외적 세계를 북아트로 구현하는 도원 작가와 사진을 통해 명상을 표현하는 이호진 작가가 '명상과 수행'이란 공통 주제로 여는 단체전이다.



休, 정상엽, 75×75cm.

이호진 작가는 '한 시간 동안의 명상' 시리즈(1~10)와 프로젝트 참가자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이 작가는 "명상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명상이 결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수행법 중 하나로 명상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원 작가는 '반야심경' '고양이의 시간' '숨' 등 12작품을 전시한다. "일상서 수행을 늘 염두에 두고 작업하며 북아트를 창작하는 자체가 명상이자 수행이었다"고 말하는 도원 작가는 경전 내용을 자수를 놓듯 종이에 실로 바느질한 작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현지영 작가의 초대전 '무상! 무아? 공?'이 10일까지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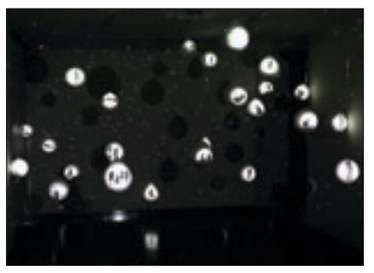
'별의 눈물'에 담긴 영적 세상 이야기

로터스갤러리, 8월 1~29일 이재원 작가展

"우리들의 눈물은 별이 되고 죽은 자는 별로 돌아간다" –이재원 작가노트 中

2017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 작가 공모에 선정된 이재원 작가의 전시가 8월 1~29일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서 영상작품 1점과 설치작품 1점을 선보인다.

첫 번째 작품은 '유성우-별비가 내리다'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닌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했다.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봐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흰색 오브제는 눈물, 빗방울, 행성을 뜻하며 그 하나하나에 죽은 자과 산 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재원 작가의 영상작품 '유성우-별비가 내리다'

두 번째 작품은 '떠 있는 창문-꽃비가 내리다'로, 창문 너머 내리는 꽃비를 통해 꽃처럼 피고 지고 다시 순환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말한다. 이 작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루의 일부분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쉬는 시간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현대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